

대형견도 실내로...소음·악취 없는 광주동물보호센터 기대감

4월에 문을 여는 북구 본촌동 광주동물보호센터 가보니

검진실·수술실·방사선실·입양상담실·미용실·세탁실 등 갖춰 시, 첫 직영...훈련사 공무원 채용 등 전문적 보호·진료 가능

유기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광주동물보호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다.

좁은 면적에 많은 유기동물이 외부에 천막 형태의 사육장에서 보호되면서 소음과 악취 등에 시달렸던 광주동물보호소가 내부 격리된 케이지로 변경돼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센터'가 오는 4월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센터는 옛 동물보호소와는 사육환경 자체가 달랐다. 벨을 누르고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전 동물보호소와 사뭇 다른 환경이다.

옛 동물보호소는 좁은 면적 때문에 건물 마당에 철장으로 사육장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찾으면 대형견들의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기동물을 안락사 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확충한 탓에 불법 증축 민원까지 제기됐다.

그동안 민간 위탁운영되던 광주동물보호소를 광주시가 직영운영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지은 것이다.

총 사업비 45억 25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3307㎡(1000평) 규모로 지어진 광주동물보호센터는 200두의 유기견 수용이 가능하다. 기존 옛 동물보호소는 유기 고양이를 수용하게 된다.

새 단장한 광주동물보호센터는 자동문이 열리자 자연스레 벽 한켠에 걸린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층에는 사무실을 비롯해 미용·세탁실, 수의사실, 검진실, 대형견 보호실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중·소형견 보호실과 자원봉사자실, 입양상담실, 수술실, 방사선실, 사료실 등이 조성돼 있다. 장애인 화장실과 승강기 등이 마련돼 있어 이동약자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1층 대형견 보호실 문을 열자 개별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대형견들이 눈에 띄었다. 센터는 기존 동물보호소와 달리 수용 공간이 넓어 대형견도 실내 생활이 가능해졌다. 무더위나 한파에도 유기견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에어컨과 히터 등 냉·난방시설이 설치됐다.

광주시는 센터 신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동물훈련사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개들은 입소 직후 야생에서 번 습성이 강해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데, 동물훈련사들은 입소한 개의 성격을 개선해 입양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 준공과 함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서 들개로 포획된 '신축이'도 이날 동물훈련사와 산책이 나왔다. 입소 당시 사람을 잘 따르려 하지 않고 저항이 심했던 신축이는 동물훈련사와 몇차례 진행한 교육 이후 눈에 띄게 입질이 줄고 오히려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다.

2층에는 입양상담실이 있어 수의사 등을 통해 입양, 임시보호(버려진 애원동물을 분양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것) 관련 상담은 물론 입양 전 사전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촌동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던 '소음'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견, 대형견 등 200여 마리가 머물고 있지만 방음시설이 설치돼 센터 밖



오는 4월 정식 개장하는 광주동물보호센터 외관(왼쪽), 센터로 옮겨진 대형견들이 쾌적해진 견사에 머물고 있다.

으로는 유기견의 짖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맞은편 아파트와 뒷편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돼 혹시 모를 소음에도 대비가 돼 있었다.

이날 임시보호를 위해 보호센터를 찾은 박지은(여·39·북구 유동)씨는 "이전 동물보호소와 달리 깔끔한 새 건물에 소음도, 악취도 없는 보호센터가

만들어져 반갑다"며 "봉사자도, 입양자도 건물과 시설이 쾌적하면 믿고 찾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직 옛 동물보호소에는 자치구 들개 포획 사업으로 광주동물보호소에 수용된 대형견들이 남아있지만, 개소식 전에 센터로 모두 이동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5·18조사위 권고안 따라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오월단체·광주시 등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5·18 기념사업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진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안과 그 필요성을 제시한다.

김 위원이 제안한 5·18 기념사업 기본법은 5·18

정신을 전국화·세계화시키는 기념사업의 주제·내용·절차·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5·18 관련 유·무형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며 정부가 5·18 기념사업을 위해 관련 단체·기관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진상조사 자료 수집·분석,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위령묘역 조성·관리, 집단학살자·암매장지 조사, 희생자 보상금 등 지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5·18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18기념재단에 추모·

유공자 복지·교육·학술·왜곡대응 등 사업을 위탁하고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시민단체 측에서는 법안을 제시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이 제시한 법안은 심의·의결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 국가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18기념사업의 지원 대상이 5·18기념재단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사 '질병 휴직' 10명 중 4명 '정신질환'

광주 3년간 48명·전남 지난해만 35명 달해 시·도 교육청,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점검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사 중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공사립 초·중·고교 교사 질병 휴직의 38%가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초·중·고교 교사 중 질병 휴직자는 초등 53명·중등 37명 등 모두 90명으로 이중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28명(초등 18명·중등 10명)이다. 전년도 우울증 관련 휴직자 14명보다 2배나 늘었다.

올해도 2월 현재 휴직한 교사 33명 중 정신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으로, 매년 질병 휴직자의 20~30% 안팎이 우울증 등으로 휴직을 신청한 셈이다.

최근 3년간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원 수를 더하면 48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복직자 수는 43명이다.

지난해 전남 공사립 초·중·고교 교사 질병 휴직의 38%가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으로 휴

직한 도내 초·중·고교사는 90명으로 이 중 35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

정신질환 휴직 교사 중 초등은 21명·중등은 14명이다.

시교육청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시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도교육청도 단위 학교별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학교전담경찰관·학교 배움터지킴이 등과 협력해 교내·외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환경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가·휴직·복직 교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심리 정서 치유를 지원하고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교원이 적극적인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화창한 하늘...일교차 크다

광주·전남에 지속적으로 내리던 눈·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 이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13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고 기온도 소폭 상승하겠다"고 12일 예보했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약화하고 따뜻한 이동성의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기온이 올라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12일 밤부터 한반도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0도·낮 최고기온

은 5~9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낮 최고기온은 9~13도에 분포하겠다.

기상청은 또 12일 오후를 기점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여수·무안·함평 등 전남 해안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의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나 비가 밤 사이 얼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 나타나는 곳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복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